



위험관리기법과 활동수준 경제규모 · 공학수준에 비례

1. 머릿말

이제 손해보험업계와 대규모 산업체에서 위험관리라는 용어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 실상은 인간삶의 모든 과정에서 끊임 없이 위험에 부딪히게 되고, 인류가 이제까지 생존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은 훌륭한 위험관리자였다는 것을 대변해 준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근 위험관리라고 말하는 것은 예측가능한 위험을 범주로 하고 있으며, 주로 인적·물적 손해가능성을 대상으로한 경영학의 한 기법으로서 공학수준이 뒷받침하고 있는 일종의 과학인 것이다.

기업을 경영하고 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위험이라 함은 여러 가지가 있어 안전, 보안, 수익성, 배상책임, 오염, 환차손익, 기업 휴지, 수요변화 등 이루어야 할 수 없이 많으며 안전분야만해도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2. 외국에 있어서 위험관리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

(1) 미국

미국은 광활한 국토개척때문에 일찍부터 안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왔고, 대형공장이 들



김 명 건
(대한재보험(주) 화재부장)

어서면서부터 산업재해가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경영방식이 일찍부터 발달될 수 있었다. 미국대륙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철도부설공사에서 나타난 재해율이 28%에 달하여 인명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되었고, 산업화의 진행과정에서 선진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위험관리가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Love Canal에 버려진 후커사 화공약품유출사고와 Three Mile Island의 원자력방사능 누출사고로 인하여 위험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었으며 미국 연방정부가 "직업안전과 건강조례"를 발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적·행정적 뒷받침

아래 성장한 위험관리 인식은 미국사회의 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한 공학수준과 의학, 풍부한 자원 등이 바탕이 되어 미국이 이 분야에 있어서 선구자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과거에 기업들은 위험관리에 가장 손쉬운 방법인 보험구매에만 의존해왔고, 그것도 ready made 보험을 구입하는 수준이었으며, 보험을 위험관리의 만병통치약처럼 여김으로써 재해예방을 소홀히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위험관리가 순수위험, 혹은 보험가입위험을 보험시설에 단순히 전가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경제적·과학적 평가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현대적 개념이 확립됨으로써 위험통제와 위험자금조달이 조화롭게 병행되고 있다.

미국보험업계에서는 HPR(Highly Protected Risks)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손실예방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뉴욕에 있는 RIMS(Risk and Insurance Management Society)를 중심으로 산업체의 재정담당자 및 엔지니어들이 위험관리에 관한 워크

압 및 정보교환, 연구활동을 비롯하여 교육·기술보급등 갖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위험관리에 관한 각종 문헌과 간행물면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어, RIMS에서 발행하고 있는「Risk Management」지, 미국방화협회인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가 발행하는 Fire Journal등 14종의 위험관리 전문잡지가 나오고 있고, 위험관리서적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2) 영국및 유럽

보험산업의 본고장인 영국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미국보다도 뒤늦게 현대적 의미의 위험관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영국에서 위험관리에 관한 최초의 논문은 1967년 경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미국의 영향인 것으로 추측된다.

흔히들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영국에 위험관리에 관한 이론이 처음 소개됐을 때 보험자와 브로커들은 일차적으로 자가보험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 및 수수료수입의 감소를 우려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경쟁적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인식은 진일보하여 위험관리라는 것을 고객에 대한 일종의 서비스로 생각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위험의 제거 및 재해방지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런 가운데 C.T.Bowring사의 경우에는 Bowring Risk Management 라는 위험관리 자문회사를 설립하였고 Keith Shipton Developments Ltd. 라는 자회사를 세워 본격적인 위험관리 업무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실은 이 회사들의 설립배경이 marketing 지원 역할이라는 일차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현재는 EML

(Estimated Maximum Loss)산정과 위험분석, 화재예방등 실질적인 위험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또한 IOI(International Oil Insurers)사는 석유화학물건에 대한 전문적인 위험관리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CII(Chartered Insurance Institute), Glasgow College of Technology 등에서 위험관리과정을 개설해 놓고 있으며, 영국의 대표적인 위험관리협회인 AIRMIC(The Association of Insurance and Risk Managers in Industry and Commerce)이 미국의 RIMS와 같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서독, 스위스, 프랑스등 유럽국가들은 일찍부터 보험산업이 발달하여 재보험 기술이 매우 뛰어나고, 특히 서독 Múnich Re.사의 Ismaning, 스위스 Winterthur사의 Engineering Service 팀, Cologne Re. 사의 Technical Department 등은 risk control (위험통제)과 risk financing(위험자금조달)의 기법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들은 보험영업을 하면서, 인수물건의 현장을 방문하여 여러가지 안전기준에 따라 survey report를 작성하고 자기회사의 보유를 결정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방재와 관련된 조언을 해줌으로써 그들의 산업안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국가들이 위험관리기법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유럽공동체인식이 가져온 그들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기술의 공동개발을 들 수 있다. 특히 프랑스, 영국, 독일등 7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AEAI는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위험관리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이 해외보험시장에 깊숙이 파고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는 탁월한 위험평가능력을 꼽을 수 있는 것이다.

3. 위험관리기법의 정착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위험관리기법이나 활동의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규모와 공학수준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방재시설및 안전에 대한 강력한 법제정 및 시행이 필요하다.

둘째, 손해보험사업제도의 점진적 자율화가 이루어져 요율의 탄력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보험계약인수를 위한 안전도조사(underwriting inspection)가 좀더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과거 생산성위주의 기업경영에서 탈피하여 각 사업장별로 방재관련조직을 상설기구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위험관리인식이 크게 높아져 이미 대다수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위험관리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물건의 안전도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한편 산업체에서도 그러한 인식이 향상되어 방재설비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고 전문엔지니어들로 구성된 안전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과거 20여년동안 닦아온 산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대재생산해야 할 임무가 있으며, 끊임없이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정착시키기를 기대해본다. 